

## 박세리, 3월 미국에서 LPGA 대회 개최

박세리(47)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로 돌아온다.

10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골프 전문 매체 골프위크는 전날 "박세리가 오는 3월 21일부터 나흘 동안 로스앤젤레스 근교 팔로스 버디에서 그의 이름을 건 골프대회를 개최해 호스트로 돌아온다"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박세리를 'LPGA의 선구자'라고 표현했고, 안니카 소렌스탐 그리고 미셸 위 웨스트가 토너먼트 호스트로 함께 나선다고 덧붙였다.



▲ 박세리, 사진=뉴스시스

달려 증가한 200만달러의 상금이 걸려 있다.

골프위크는 "박세리는 LPGA 신인이었던 1998년 US여자오픈을 포함해 2번의 메이저 우승을 차지했다"라면서 "그는 LPGA 투어에서 25승을 거뒀고, 전 세계 투어에서 39승을 기록하며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LPGA 투어에 입성했을 때 그는 투어에 참가한 유일한 한국인이었으나 2016년 은퇴 당시엔 투어에서 풀타임으로 뛰는 한국 선수는 34명이었고, 그중 27명이 우승했다"라고 덧붙였다.

대회가 열리는 팔로스 버디스 골프클럽에서는 지난해까지 LPGA 투어 DIO 임플란트 LA 오픈이 열렸다. 올해는 '퍼 힐스 박세리 챔피언십'으로 간판을 바꿔 단다. 이 대회에는 144명이 출전하며 지난해보다 25만

박세리는 "대회 호스트로 LPGA 투어에 복귀하게 돼 영광"이라며 "다음 세대 골퍼들을 멘토링하고 골프에 환원하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의 핵심이다. 이번 대회가 LPGA 투어에서 새로운 도약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김효주, LPGA '강력한 시즌 보낸 선수' ... 한국 선수 유일



▲ 김효주, 사진=KLPGA 투어

김효주(29)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뽑은 2023년 강력한 시즌을 보낸 선수로 선정됐다.

9일 '골프다이제스트'에 따르면 LPGA투어는 전날 2023년 강력한 시즌을 보낸 선수 5명을 소개한 가운데 김효주가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

2023년 LPGA투어에는 4승을 거둔 릴리아 부(미국), 셸린 부티에(프랑스) 등 주목할 만한 우승자가 눈에 띄었다. 여기서 김효주는 꾸준함으로 승부했다. 그는 20개 대회에 출전해 어센던트LPGA베네페팅 발룬티어 스오브아메리카(VOA)에서 우승한 것을 포함해 9차례나 톱10에 들었다. 덕분에 평균타수 2위(69.63타), CME글로벌포인트 4위(2,413점), 상금 순위 7위(212만3,856달러), 페어웨이 안착률 4위(83.53%), 그린 적중률 10위(74.22%), 홀당 퍼팅 수 4위(1.75개) 등 대부분 지표에서 상위권에 속했다.

LPGA는 "VOA에서 우승한 김효주가 눈에 띄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우승을 제외한 톱10 8차례 중 6번이 톱6에 든 성적이다. 20개 대회에서 단 한 번도 컷 탈락하지 않았다. KPMG 퍼포먼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2023년 이득타수에서 전체 이득타수 1위, 티 투 그린 4위, 그린 주변 6위, 어프로치 이득타수 9위를 기록했다"고 김효주의 활약을 소개했다.

## 샌디에이고 고우석 등번호가 21번인 이유



▲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유니폼을 입은 고우석, 사진=리코스포츠에이전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 입단한 고우석(25)이 새 등번호를 달고 뛰는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샌디에이고 구단이 이날 공개한 2024시즌 40인 명단 등번호를 보면, 고우석은 '21번'을 배정받았다.

고우석은 KBO리그 LG 트윈스 소속 시절 등번호 19번을 달고 뛰 바 있어 배번 19번에 관한 애정은 컸다. 그는 한국 대표팀에서도 늘 19번이 적힌 유니폼을 입고 뛰었다. 지난해 열린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도 19번을 달고 출전했다. 당시 고우석은 한국대표팀에 합류한 메이저리거 토미 현수 에드먼(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과 배번이 겹쳤지만, 에드먼의 양보로 19번을 달기도 했다.

고우석은 샌디에이고에서 등번호 19번을 달고 뛰 수가 없다. 이 번호가 샌디에이고구단의 영구 결번이기 때문이다.

19번은 샌디에이고의 전설적인 선수 토니 그윈이 사용하던 번호다. 샌디에이고 주립대를 졸업한 그윈은 1982년부터 2001년까지 샌디에이고 한 팀에서만 뛰었고, 통산 20시즌 동안 2천440경기 타율 0.338, 135홈런, 1천138타점의 성적을 거뒀다.

그는 총 8차례 내셔널리그 타격왕에 올랐고, 15차례 올스타에 뽑혔다. 그윈은 은퇴 후 샌디에이고 주립대 감독으로 활동하다 2014년 세상을 떠났다.

### 1507호 숫자퍼즐 (이번호 정답은 P530에 있습니다)

5			7				8	1
	1			8	2			
		2	3			6		
7		4			9			
			2				1	8
		6		3		7		
	6	5			3			4
3	9			7				
						1	3	

### 날말퍼즐 정답

	1	외	압		2	바	3	다	
		항				4	수	습	5
6	개	선	7	책		8	꿈	결	
	펼		9	사	10	회	자		
					11	고	리	12	채
14	속		15	부	록		16	찍	17
18	내	구	재						시
			19	자	청		20	연	민